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록

I. 일 시 : 2024. 2. 27.(화), 14:30 ~ 17:15

II. 장 소 : 청와대 영빈관 2층

III. 상정안건 : 총 2건(보고안건 2건)

IV. 참석자 현황

☐ 구성원

주제 : 대통령									
국무총리	한덕수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		불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		법제처장	이완규	○			
지방시대위원장	우동기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	대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	○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		경기도지사	김동연	×	대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장	조길연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재구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							
비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임(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 배석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환경부장관	한화진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	○	
비서실장	이관섭	○		정책실장	성태윤	○	
정무수석	한오섭	○		사회수석	장상윤	○	
수석비서관 외 배석간사	정책조정비서관, 자치행정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교육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보						

□ 국민의례(사회 : 전문 아나운서)

국기에 대한 경례

□ 개 의

대통령께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의를 선포함.

□ 모두 말씀

작년 10월 안동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한 후 4달 만에 뵙게 됨.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문제를 논의하고자 함.

먼저 의료개혁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함.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음.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임.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됨.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미 정부는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불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의료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늘봄학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저는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옴. 국가 돌봄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음.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음.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음.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함.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과 이해득실을 떠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 정부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음.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실무협의회 논의경과 보고

○ **경과보고** :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 **주요내용**

▶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 '24. 2. 14.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1건의 보고안건을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 상정 안건 :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교육부)
- 미상정 안건 : ①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행안부), ②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교육부), ③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시도協), ④지방교부세 확대방안(시군구청장協), ⑤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및 조직체계 개선(시도·시군구의회協)

▶ 미상정 안건은 관계기관 논의 지속 추진

▶ 실무협의회 이후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2. 23.]에 따라 보고안건 1건을 긴급 상정

□ 보고안건 심의(진행 : 국무총리)

1. 의사 집단행동 대응 [의안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

○ 제안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 주요내용

▶ 의료개혁 추진 및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계 상황

-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24.2.1.) 및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2.6.),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2.19.~) 등 의료계 집단행동 확대

▶ 비상진료대책 추진방향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 완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

▶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대책

- 중등증·경증 환자 분산 위한 인센티브 부여, 상급종합병원 대체인력 투입, 합리적 의료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병행

○ 토 의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2.6.부터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가동, 전공의 공백이 큰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긴급 채용 등 추진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환자 중증도에 따라 관내 응급병원 간 이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치구-의료기관-경찰서-소방서-건강보험공단등 관계기관 핫라인을 운영 중임.
-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부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 군의관·공중보건의 신속 파견을 요청함.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지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 비상진료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의사 인력 수급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방의대에 대해서는 더 크게 배려해 배정을 해줬으면 함.

-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더 늦출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문제임. 바이오헬스라는 미래 먹거리에 의사들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의사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림.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현장 복귀를 요청하는 도지사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료개혁 관련 도민 홍보를 진행함.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현 사태 장기화 시 중증 환자 등 진료 차질이 우려됨. 국립 의과대학이 필요함.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지방의료원 사기 증진을 위해 연장 근무 수당을 지원하였음. 우수 인력 의대 선호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희망.
-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사무실을 24시간 운영 중임.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신청 반영 및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 부분 해결 요청.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전남대병원의 경우 소아과 정원을 늘려도 채워지지 않음.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 보상체계 문제를 포함하고, 의과학자·공공의사 증원 규모를 정확히 정해줘야 함.
- **국무총리 한덕수** 광주시장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서 다루고 있음. 의사들이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에 남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논의하여 2월 1일 발표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 중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 의대 신설은 계속 검토해 나갈 것. 다만,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주 여건 조성도 중요함. 오늘 말씀을 유념해 홍보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 **대통령 윤석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는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임. 의사 증원은 의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조건임. 합리적인 책임보험 제도와 의료 분쟁 중재·조정 제도,

공공정책수가를 만들어 뒷받침해줄 때 모든 지역에서 균형 있게 국민들이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음. 다만, 의료개혁은 필수조건을 시급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첫 번째임. 변호사 숫자가 늘어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음.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 기본적인 필수조건이 갖춰지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임. 충분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제시해 주시는 것을 대폭 받아들여서,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 또 의료계도 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개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

- 국무총리 한덕수 시·도에서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총리실에 전화하여 논의해주시길 바람. 원안대로 접수하겠음.

○ 의 결 : 원안접수

2. 2024년도 돌봄학교 준비 [의안 제2호, 교육부장관]

○ 보 고 : 교육부장관 이주호

○ 주요내용

▶ 돌봄학교 핵심내용 및 로드맵

-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전담 조직·인력 구성
- 올해 1학기 2,741개교 →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 돌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 교육청-지자체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한 프로그램·공간·인력 확보 과제

○ 토 의 [진행: 전문 아나운서]

-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시-교육청-16개 구·군-지역대학 참여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를 통해 빈틈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 직속기관·대학 등과 연계해 1만 5천여 개 프로그램 운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초등학생의 발달과 성장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좋은 강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 농산어촌이 많아 외부 강사 채용이 어려움. 교실, 강사, 자원봉사자 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드림.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늘봄학교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지원하고, 농어촌 돌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음.
-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지자체협력형, 거점센터형, 지역자원활용형 등 지자체 협력 강화 모델을 개발함. 외부강사 검증 시스템, 안전한 이동 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에 자율권을 주었으면 함.
- **대구 초등학교 교장 신도시** 과대학급은 교실 확보가 곤란함. 인근 지역 돌봄시설, 지자체 복합문화공간 등 교육인프라의 학교 공유가 필요함.
-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학교별 자율 신청으로 늘봄학교 참여가 저조함. 2학기 전면 실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센티브로 '꿈은 담은 교실'을 조성하고 1학기 추가 모집을 독려하고 있으며, 긴밀한 분업 협력 모델이 필요함.
- **학부모** 늘봄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한다는 기사나 서울 지역 늘봄 신청이 가장 저조하다는 뉴스를 봤을 때 매우 안타까웠음. 학교 구성원과 지자체, 교육계 어른들이 협력하여 아이들을 잘 챙기고,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람.
-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지역아동센터 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노력해 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복지부에서 지침을 개정해 운영시간을 풀어줘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관광지 특성상 주말 돌봄 수요가 높아 교육청과 함께 3월부터 제주형 초등주말돌봄을 진행할 계획임.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재구**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자치단체와 협력이 중요함. 강원 화천군 등 지역 특성화 운영사례를 소개함.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늘봄학교 돌봄 전담교사 보조인력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할 예정임. 어르신, 학생·학부모, 교사 등 모든 관련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1거5득(一舉五得)의 효과를 기대함.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신경호 '지역대학 연계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기간제 교사 확보와 공간 마련, 재정지원이 필요함.
- 경기 시흥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장 프로그램 강사 풀, 학생 이동이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지원이 중요함.
- 경북 안동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이 저녁까지 학교에 남는데, 인력이 충분치 않아 교사들이 하교를 책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확보한 멘토링 대학생, 근로장학생 등이 학교로 연결되면 좋겠음.
-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 대구 '행복한 학교 재단'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함. 65세 이상 시니어 고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을 건의드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지역 늘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음.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 간식비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 우수사례로 말씀드릴.
-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5년 전부터 자체 시책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시청 안에 늘봄학교 지원 전담팀을 만들었음. 다만, 재원상의 한계로 8시까지 운영을 못하고 5시 반까지 하고 있음.
- 국무총리 한덕수 전체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늘봄학교 프로젝트에 대해 큰 반대는 없으신 것 같음. 준비 과정에서 더 보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접수하겠음.

○ 의 결 : 원안접수

□ 마무리 말씀

그간 5번의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정부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 위주로 진행되어왔으나, 오늘은 특별히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과 3월부터 추진할 늘봄학교에 대해 열띤 토론과 논의를 하였음. 국가 전체의 정책에 대해서 내각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논의를 앞으로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됨. 국가 돌봄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일로,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음. 늘봄학교 추진 관련 규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에서 관련 부처와 조속하게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램.

의사 증원 문제 관련, 의사의 증원은 어떤 특단의 지원이나 투자 없이도 해낼 수 있는 검증된 최소한의 수준이고,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임. 오늘 참석하신 시도지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 드리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정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음.

오늘 국가적인 두 중요한 과제에 대해 좋은 의견 개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산 회

대통령께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산회를 선포함.

(17시 15분 산회)

▶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록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발언요지 등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회의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포함

▶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보공개포털사이트(open.go.kr)’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에 공개되고 있습니다.